

## 주말을 풍요롭게 하는 미술관 산책...새해에 놓쳐서는 안될 기막힌 전시들

기사입력 2012.01.11 15:52:03

2012년이 밝았다. 올해는 미술관에 가서 전시회도 보고 산책도 하는 즐거움을 놓치지 않으리라 다짐했다면 다음의 전시들이 남다르게 보일 것. 헬리콥터를 타고 상공 3000m 높이에서 촬영한 지구의 모습은 물론 지금 세계가 주목하는 신기한 의자를 만든 네덜란드 디자이너의 가구까지 만날 수 있는 전시로 참만하니 이주엔 미술관으로 향해보자.

### 세계가 주목 신예 가구디자이너, 요리스 라만



JORIS LAARMAN\_Installation view 02

가구 전시를 즐기는 이들에겐 네덜란드 출신의 신예 가구 디자이너 요리스 라만의 개인전을 추천한다. 라만은 2003년 네덜란드 에인트호번 아카데미를 졸업한 후 미국 뉴욕현대미술관(MoMa)의 '디자인과 유연한 정신' 전을 통해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본 체어(Bone Chair)'와 '본 체이즈(Bone Chaise)'를 처음 선보였다. 당시 전시된 의자는 젊은 작가로는 이례적으로 MoMa의 영구 소장품이 되는 영광을 안았다. 데뷔하자마자 급부상한 그는 세계 곳곳의 각종 상을 휩쓸었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주관한 '2001년 미술부문 혁신가상'을 받았다. 그의 작품은 단아한 선과 강하고 도발적인 형태가 조화를 이룬 것이 특징. 최첨단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면서도 자연친화적인 이미지로 신선함을 준다는 평이다. 그의 대표작 '본 체어'는 뼈의 성장 과정에서 인체를 지탱하는데 필요한 부분은 계속 성장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퇴화한다는 독일 과학자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제작된 자동차 부품 생산용 소프트웨어를 의자 디자인에 도입했다. 의자의 부위별 치수와 사람의

몸무게 등을 입력하면 이상적인 의자가 된다는 것. 이번 전시에서는 알루미늄, 고무, 청동 등을 활용해 숲 또는 다리 모양을 본뜬 테이블과 사람 뼈 형태로 만든 책꽂이, 인체 곡선을 반영해 제작한 의자 등 23점을 만날 수 있다.



(상단) 가구디자이너 요리스 라만(Joris Laarman)

(좌) Leaf Table 02 (우) Armchair

기간 2011.12.13~2012.1.20 장소 국제갤러리 문의 02-735-8449 [www.kukjegallery.com](http://www.kukjegallery.com)

[글 = 신정인 기자 / 사진 = 각 미술관]

[본 기사는 매일경제 Citylife 제311호(12.01.17일자) 기사입니다]

URL: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25812>